

[사관학교 국어의 1인자! 국신T]

“6월 모평 적용”

사관 1차시험 국어 Final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사관학교반 담임)

前 노량진이투스 (마감강사)

前 외교, 자사고 특강

[저서] 절대(絶對)국어 시리즈

[감수] 비문학 교과서 독해 시리즈

Orbi Class

[1강] 음운변동

[음운이란?]

: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

- 분절음운
- 비분절음운

[음운 변동, 표준발음규정]

- 발음할 때의 음운현상을 규정한 규칙

[음운 변동의 출제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파악하기
교체	1. 교체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2. 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유음화), 모음동화
3. 탈락		자음탈락(ㅎ, ㅅ, ㄹ탈락), 모음탈락(ㅡ, ㅓ, 동음탈락)
4. 축약		거센소리되기(자음축약), 모음축약
5. 첨가		사잇소리 현상, ㄴ첨가

* 종합적으로, 내가 음운변동 현상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 필요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

[끝소리 규칙]

앞	→	[입]
옷, 낫, 꽃, 바깥, 히을		[옴], [남], [꼰], [바깡], [히을]
밖, 부엌		[박], [부억]

[연음현상과 함께 이해]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온다면? **그냥 연음하여 발음**

예) 옷이, 옷을, 값이, 값을, 낫으로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온다면? **끝소리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연음**

예) 꽃 위, 옷 안, 옷 아래

(2) 된소리되기 (경음화)

: 두 개의 안울림소리(장애음)가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장애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를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국밥 → 「국뺨」, 견고 → 「견꼬」, 없다 → 「업따」, 덧개 → 「덧깨」, 역도 → [역또], 젓소 → 전소 → [전쏘]
--

- 단, 어간말 자음이 ‘ㄴ, ㄹ’일 때 뒤 따르는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함.

(끓고 [끓:꼬], 신고 [산:꼬], 갈 데가 [갈 떼가] 등)

2. 동화

(1) 자음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 비음화(ㅁ, ㄴ, ㅇ)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ㅂ, ㄸ, ㅌ → [ㅁ, ㄴ, ㅇ] / ㅁ, ㄴ 앞

(ㄴ) 유음 'ㄹ'이 비음 'ㅁ, ㅇ'을 만나면 비음 'ㄴ'으로 변화

ㄹ → [ㄴ] / ㅁ, ㅇ 앞

(ㄷ) ㅂ, ㄸ, ㅌ + ㄹ → [ㅁ, ㄴ, ㅇ] + [ㄴ]

예) 국물, 남루, 독립, 섬리 등

- 유음화(ㄹ)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ㄴ' 과 'ㄹ' 이 만났을 때 'ㄴ' 이 'ㄹ' 로 바뀌는 현상 ㄴ-ㄹ / ㄹ의 앞이나 뒤	신라 → [실라], 천리 → [철리], 논리 → [놀리] (설측음화)
	칼날 → [칼랄], 찰나 → [찰라], 말눈 → [말룬], 실날같이 → 실랄가티 → [실랄가치] 앓는 → 알는 → [알른], 끌는 → 끌는 → [끌른], 훑는 → 훑는 → [훑른]

<예외>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딤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2) 모음동화

: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 대부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설모음화 : 후행 'ㅣ'의 영향으로 선행 'ㅏ, ㅑ, ㅓ, ㅕ'가 'ㅘ, ㅙ, ㅚ, ㅜ'로 바뀌는 현상

예> 아비 → [애비], 잡히다 → [자피다] → [재피다], 먹이다 → [머기다] → [메기다]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설모음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구개음화

: 'ㄷ, ㅌ' 등의 치조음이 'ㅣ' 모음과 결합할 때, 'ㅈ, ㅊ' 등의 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예) 달히어 [다티어 → 다치어 → 다쳐], 굳히다 [구티다 → 구치다]

3. 탈락 / 축약

(1) 자음탈락

- 'ㄹ' 탈락 규칙 : 'ㄹ'이 뒤에 오는 잇몸소리 혹은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
 - (합성/파생) 합성과 파생 과정에서의 'ㄹ'탈락 : 끝소리 'ㄹ'이 'ㄴ, ㄷ, ㅂ,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싸전(쌀-전), 여닫이(열-닫이)
 - (용언) 활용 과정에서 'ㄹ'의 탈락 : 'ㄹ'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끝소리 'ㄹ'이 'ㄴ, ㅂ, ㅅ, ㅇ'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
갈다 :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등글다 : 등그니, 등근, 등급니다
- (용언) 'ㅎ'의 탈락 : 'ㅎ'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ㅎ'이 탈락
낳은 [나은], 놓아 [노아], 쌓이다 [싸이다], 많아 [마나], 앓은 [아는], 닳아 [다라]
- (용언) 'ㅅ' 탈락 : 원래의 형태소에서 'ㅅ'이 탈락하는 현상
긋다 → 그어, 잇다 → 이어 등
- (합성) 동음탈락 : 동음 중 앞자음이 탈락하는 형상
간난 → 가난, 목과 → 모과

(2) 자음군 단순화

- 1) **ㄱ, ㅋ, ㆁ** 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
예) 값, 몫, 앉고, 외곶, 할고
- 2) **ㄴ, ㄷ** 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
예) 삶, 읊지
- 3) **ㄴ, ㄷ** 은 불규칙적 (<보기> 활용)

(2) 모음탈락

구 분	성 격	예 시
동음탈락	이어진 동음 중 뒤의 모음 탈락	가아 → 가
'ㅓ'탈락	어미 '-어' 앞에서 탈락	푸어 → 퍼
'ㅡ'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	쓰어 → 써

* 동음탈락 : -아서, -어서, -어라, -아라 등이 오는 경우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

(3) 음절의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 두 소리가 이어질 때 두 소리의 성질을 모두 가진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

- 자음 축약 : 'ㅂ, ㄷ, ㄱ, ㅈ' + 'ㅎ' → 'ㅃ, ㅌ, ㅋ, ㆁ'
ex) 좋고 → [조코], 읊지 → [을치], 잡히다 → [자피다], 닫히다 → [다티다] → [다치다]
- 모음 축약 : 두 모음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ex)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뒀다, 되+어 → 돼, 가지+어 → [가져]

4. 첨가

[1]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성립하는 패턴]

0. 합성어

1. 접점에 울림소리가 존재해야 함.
2. 발음상 조건 충족 (된소리, ㄴ첨가, ㄴㄴ첨가)

[조건1] 울림소리 + 안울림예사소리 (밤길, 눈사람, 코등)

[조건2] 모음 + 안울림예사소리 (벧사공, 촛불)

[조건3] 모음 + 울림소리(ㄹ, ㄴ) (이몸, 코날)

[조건4] 모음 + 모음 (가윗일, 예삿일)

[조건5] 뒷말이 'ㅣ'로 시작될 때 (논일, 물약, 아래이)

[사이시옷까지 붙이는 패턴]

- +3.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받침이 없을 경우)
- +4.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

— <보기>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ㄴ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가 들어가는 이중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ㄴ, ㄴㄴ이 발음시 덧난다.

예) 숨+이불, 눈+요기, 교육+열, 발+이랑(명사)

5. 음운변동 신유형 연습 (사관, 경찰대 등 기출유형 변형문제)

1. <보기>는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말 음운 변동 중, 교체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논일
- ② 같이
- ③ 바깥
- ④ 믿는다
- ⑤ 물놀이

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늪 앞'은 [느 밥]으로, '젓어미'는 [저더미]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음식이 맛없다.[마덥따]
- ② 헛웃음만 나왔다.[허두슴]
- ③ 곁에 먼지가 묻었다.[거테]
- ④ 발 아래 눈이 있다. [바다래]
- ⑤ 꽃을 선물 받았다.[꼬슬]

3. <보기>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 ① '없다'는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업따]로 발음한다.
- ② '앞문'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서 [암문]으로 발음한다.
- ③ '밧는'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서 [밤는]으로 발음한다.
- ④ '달히다'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나서 [다치다]로 발음한다.
- ⑤ '짓이기다'는 탈락과 첨가가 일어나서 [진니기다]로 발음한다.

4.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점)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발이랑[반니랑] . 늦여름[느녀름] . 술하다[수타다] . 국물[궁물]
 . 종으면[조:으면]

- ① '발이랑'이 발음될 때에는 첨가되는 'ㄴ'으로 인해 앞의 자음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늦여름'이 발음될 때에는 'ㅈ'이 탈락하면서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가 발음될 때에는 'ㅌ'이 'ㄷ'으로 교체된 후 이어지는 음운과 만나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국물'이 발음될 때에는 'ㄱ'이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종으면'이 발음될 때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나는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5.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홀이불 → [혼니불], 꽃잎 → [꼰닙],
 읊다 → [읍따], 헛웃음 → [허두슴]

- ① 종성의 자음이 탈락하였다.
- ② 음절 끝의 장애음이 평음으로 바뀌었다.
- ③ 비음 앞에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④ 뒤에 오는 말의 초성으로 'ㄴ'이 첨가되었다.
- ⑤ 받침으로 쓰인 폐쇄음 뒤에서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었다.

[2강] 형태소, 품사

[배우고 있는 부분, 지도 그리기]

음운 - 형태소 - 단어 - 구, 절 - 문장

○ 형태소 : 뜻(의미)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의미의 최소단위)

1)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약간의 어근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의존 형태소 -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2) 의미의 기능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근, 어간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형식 형태소 - 조사,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형태

[반침의 유무로 구분]

책상 : 책상+을

의자 : 의자+를

[모음조화로 구분]

같다 : 같+았+다

먹다 : 먹+었+다

*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형태

[참고] 매개 모음 '-으-'는 형태소 자격이 없다.

⇒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으-'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예) 먹다 ⇒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품사의 필수 출제패턴 정리]

기능 기준	형태 기준	9품사(의미기준)	필수 출제패턴 정리
체언	불변어	명사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의 조사사용 차이를 알고 있는가?
		대명사	인칭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재귀대명사 알고 있나? 기본 지시대명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수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관계언		조사	격조사, 모조리 암기하고 있나?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
독립언		감탄사	-
수식언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나?
	부사	문장부사를 알고 있나? 부사와 용언을 구분할 수 있나?	
용언	가변어	동사	불규칙활용, 본용언/보조용언 알고 있나?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분하나?

1.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1] 명사

- 유정명사 / 부정명사

- 보통명사 / 고유명사

※ 대로, 만큼, 뿐

- 의존명사 : 먹는 대로, 먹는 만큼 등

- 조사 : 너대로, 너만큼 등

[2] 대명사

① 인칭 대명사

(ㄱ) 1인칭 대명사 : 말하는 이를 가리킴. 예) 나, 우리, 저, 저희

(ㄴ) 2인칭 대명사 : 듣는 이를 가리킴.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ㄷ) 3인칭 대명사 : 다른 사람을 가리킴.

[이것만 기억하자]

미지칭, 부정칭의 구분 → 이무, 아무나, 아무거나 등을 대입하여 말이 되면 부정칭
높임과 낮춤의 재귀대명사 기억하자! 기억하자!

예) 저이, 그이, 이분, 그분, 어느/누구(미지칭), 아무/누구(부정칭), 자기/당신(재귀)

예) [미지칭, 부정칭 구분이 필요한 단어] 누구/무엇/어디

② 지시 대명사 → 관형사와 의존 명사의 합성

[이것만 기억하자]

이 : 화자에게 가까운 것 지칭 그 : 청자에게 가까운 것 지칭 저 : 둘 다에게 멀 때

③ 대명사 품사의 통용

-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 이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
- 열쇠가 여기 있었네!

[3] 수사

① 수사 품사의 통용

- 두 명이 여기 왔다.
-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2. 관계언(조사)

[1] 격조사 (무조건 체언과 결합하여, 자격(문장성분)을 부여, 생략가능)

- ① 주격조사 → 주어 : ~이, ~가, ~에서(단체), ~께서
- ② 목적격조사 → 목적어 : ~을/를
- ③ 서술격조사 → 서술어 : ~이다
- ④ 보격조사 → 보어 : ~이/가 + (~되다 / 아니다)
- ⑤ 관형격조사 → 관형어 : ~의
- ⑥ 부사격조사 → 부사어 : ~에, ~에서, ~에게, ~(으)로, ~와(비교) 등
- ⑦ 호격조사 → 독립어 : ~야 (중세국어 : ~하(존칭))

[2] 접속조사 vs 비교 부사격조사 구분

-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겹문장이면) 접속 조사이며
 바꾸어 쓸 수 없으면(흠문장이면) 부사격 조사

예) 나는 국어와 수학을 잘한다. → 나는 국어를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예) 나는 철수와 비슷하다. → *나는 비슷하다. *철수는 비슷하다.

[3] 보조사 (어떤 품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조사, 생략불가)

- ① 어떤 특별한 뜻(일정한 의미)을 더해주는 조사
- ② 말하는 이의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쓴다.
- ③ 말의 표현을 더 섬세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

형 태	의 미	예 문
은/는	대조(주제)	사자는 맹수다.
도	역시, 동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만	유일, 단독	너만 꼭 그런 짓을 한다.
요	상대높임	잘 먹었어요.

3. 용언(동사, 형용사)의 출제패턴 정리

(1) 용언의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 활용 :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
- 어간 : 활용시 변화하지 않는 부분
- 어미 : 활용시 변화하는 부분

> 용언 외에 활용하는 نوم은? 서술격 조사가 있지~

> 피동, 사동, 강세의 접사가 붙는 말은 그 접사까지 포함하여 어간으로 본다.

- 먹이다, 먹히다, 밀치다, 깨뜨리다

어근(語根) 과 어미(語尾)

⇒ 어근은 접사의 상대 개념이며, 어간은 어미의 상대 개념이다.

①	먹	+	이	+	다	,	깨	+	뜨리	+	다
	어근		사동접사				어근		강세접사		
	└───┬───┘						└───┬───┘				
	어간						어간				
			어미						어미		

(2) 어미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① 어말 어미의 갈래

- (ㄱ) 종결 어미 - 문장을 종결
- (ㄴ) 연결 어미 - 문장이나 구를 연결
- (ㄷ) 전성 어미 - 용언이 명사, 관형사,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함.
 - ┌관형사형 전성어미 : -(으)ㄴ, -는, -(으)ㄹ, -던
 - | 명사형 전성어미 : -기, -(으)ㅁ,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② 선어말 어미

- ┌높임 : -시-
- └시제
 - ┌현재 : -는-/-ㄴ-
 - | 과거 : -었-/-았-
 - | 미래 : -겠-
 - └회상 : -더-

(3) 본용언 vs 보조용언

- 용언과 용언이 이어질 때, 본용언과 본용언의 결합인지 /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인지 구분 필요
- 본용언 : 핵심적 의미, 자립 가능
 - 보조용언 : 본용언의 뜻을 보완, 자립 불가능

예 나는 밥을 먹고 잤다. ㄱ나는 밥을 먹었다.
 ㄴ나는 (잠을) 잤다.
 나는 철수를 따라가고 싶다. ㄱ 나는 철수를 따라간다.(본)
 ㄴ 나는 철수를 *싶다.(보조)
 감상을 적어 둔다. ㄱ감상을 적는다.(본)
 ㄴ감상을 *둔다.(보조)

[구분하기 어려운 보조용언의 출제 패턴]

먹고 싶다, 보다 보니, 적어 둔다, 살아 왔다, 먹어 버렸다, 막아 내다

(4) 용언의 활용

[이것만 기억하자! 불규칙 활용 판별패턴]

- 기본형을 만들어, 어간을 도출한다. (긋다, 어근 '긋-')
- 어간에 어미 '-어/아'를 붙여본다. (긋+어 → 그어, 어라! ㅅ이 탈락했네!)
- 변화없으면, 어간에 어미 '-는'을 붙여본다.

- ① **규칙활용** : 모습이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 (ㄱ) 모음 조화 : '-아/-어'의 교체
 - (ㄴ) 축약 : 보 + 아 → 봐
 - (ㄷ) 탈락 ㄱ ㄹ 탈락 : 울 + 는 → 우는, 울 + 오 → 우오
 ㄴ 으 탈락 : 쓰 + 어 → 써, 치르 + 어 → 치러
- ② **불규칙활용** :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불규칙적인 것.
- (ㄱ)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ㄱㅅ 불규칙 : 잇+어, 낫+아
 ㄱㄷ 불규칙 : 듣+어, 긴+어, 견+어
 ㄱㅂ 불규칙 : 곹+어, 줍+어, 뎡+아
 ㄱㄹ 불규칙 : 흐르+어, 나르+아
 ㄴ우 불규칙 : 푸+어
 - (ㄴ)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ㄱ여 불규칙 : 일하+어, 사랑하+어
 ㄱ러 불규칙 : 푸르+어, 이르+어
 ㄴ너라 불규칙 : -아라/-어라 → 너라 (오다)
 - (ㄷ) 어간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ㅎ 불규칙 형용사 : 파랑+아, 빨강+아

4. 단어의 형성 필수개념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개념어	기억해야 할 패턴
합성어	의미상 구분	대등	- and로 연결되는 놈들 (남녀, 여단다 등) · 명사+명사 → 외과를 넣었을 때 의미변화 없음 · 용언+용언 → 고로 연결했을 때 의미변화 없음
		종속	- and로 연결되지 않는 놈들 (돌다리, 국밥 등) · 명사+명사 → 외과를 넣었을 때 의미가 다름 · 용언+용언 → 고로 연결했을 때 의미가 다름
		융합	- 사전적 약를 무시하고 완전 다른 약로 거듭난 합성어 (춘추=연세 광음=세월 모순=앞뒤가 맞지 않음 등)
	형태상 구분	비통사적 합성어	- 어미가 생략되고, 용언의 어간만 남은 합성어 - 부사+체언으로 구성된 합성어 -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다르게 결합된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외 나머지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기억해야 할 패턴
파생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뜻+	주로 접두사, 접미사 중 품사 못 바꾸는 놈
		품사 변경	주로 접미사 (떡+이→떡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문장구조 변경	사동, 피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
		문장구조 변경+품사변경	사동,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용사 중 (예 : 높다 → 높다)

7. 밑줄 친 조사의 용법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사관기출 변형]

- ① 구청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 ②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됩니다.
- ③ 우리 학교에서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④ 이번 체육대회는 부산 경찰서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 ⑤ 요양원에서 건강 달리기 대회를 열어 모두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10.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대 기출]

<보 기>

- ㄱ.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이제 곧 날이 밝는다.
- ㄴ.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 만세! 대한 독립 만세!
- ㄷ.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 ㄹ. 평생을 함께해서 행복하였다. - 그런 이야기는 평생처음 듣는다.
- ㅁ.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 ① ㄱ의 '밝다'는 형용사이지만, '밝는다'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 ② ㄴ의 '만세'는 명사이지만, '만세!'의 경우에는 감탄사로 쓰인 것이다.
- ③ ㄷ의 '열'과 '백'은 명사이지만, '열 사람, 백 말'의 '열'과 '백'은 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 ④ ㄹ의 '평생'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평생 처음'의 '평생'은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 ⑤ ㅁ의 '다른 생각 말고'의 '다른'은 관형사이지만, '성격이 다른 사람'의 '다른'은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11. <보기1>의 ㉠ ~ ㉣에 대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사관기출]

<보기1>

- .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고향을 생각했다.
- . 그는 부모님께 이불 두 ㉡채를 선물로 보냈다.
- . 어머니께서는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집을 나셨다.
- . 그녀는 항상 당근은 ㉣채를 썰어서 기름에 볶아 먹었다.

<보기2>

- a. ㉠,㉡,㉣은 체언이다.
- b. ㉠,㉡은 수식어가, ㉣은 피수식어가 필요하다.
- c. ㉠,㉣은 ㉡과 달리 조사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다.
- d. ㉣은 ㉡과 달리 문장 안에서 결합하는 단어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 ① a, b ② a, c ③ a, d ④ b, c ⑤ c, d

[5강] 문법에 출현할 긴 <보기> 대비 훈련1

[5강 - 1] 비문학+문법(품사-조사)

주격 조사는 ‘가’와 ‘이’이다. 앞의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의 경우엔 ‘가’를 쓰고 앞의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 폐음절일 때는 ‘이’를 쓴다. 본디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 하나였는데 폐음절 뒤에서는 ‘이’가 온전히 형태를 보존했고, |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선 앞의 모음과 어울려 이중 모음을 이루었으며, | 모음 뒤에선 체로 형태*를 지녔다. 이 ‘이’가 개음절 뒤에서 ‘가’라는 이형태(異形態)를 취하게 된 것은 17세기 중반 이후였다. 개음절 뒤에서 ‘이’가 청각적으로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가 새롭게 등장한 한 원인이었다고 대개는 추정한다.

그러나 ‘가’와 ‘이’가 한국어 사용 지역 전체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서북 지방의 방언에서는 ‘소가 달아났어요’를 ‘소래 달아났어요’로 나타내는데 이는 주격 조사로 ‘래’가 사용된 경우이다. 황해도 북부 지방에서는 주격 조사로 ‘라’가 쓰이기도 한다. ‘철수라 마당에 있니?’에서 ‘철수라’는 ‘철수가’인 것이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특정한 단어 아래서 주격 조사 ‘리’가 보인다. ‘하루리’에서 ‘리’는 본질적으로 ‘이’와 다름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루가’로 이해된다. ‘리’는 중세 국어에서 ㄹ첨가 현상이 일어나 형성된 조사로서 제주도가 언어의 변화가 적고 옛 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는 증거이기도 한데, ‘하리(하루의 옛말)’의 주격인 ‘홀리’가 ‘하리’로 남아있는 데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의 ‘래’, ‘라’ 등은 역사적으로 ‘이’보다는 나중에, 그리고 ‘가’보다는 앞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북 지방의 일부 방언에서는 지금도 개음절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주격 조사 ‘가’가 아니라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코이와 저래?’에서 ‘코이’는 ‘코가’인데 역시 중세어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음절로 끝났으면서도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는 명사 바다, 하나, 네모 등은 모두 중세어에서 단어 끝에 ‘ㅎ’을 보유하고 있던 말들이다.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 ㅎ이 숨어 있지만 뒤에 조사가 붙을 때는 그 ㅎ이 나타나 사용되었다. 이 단어들에서 ‘히’는 단어의 ‘ㅎ’과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다’는 주격 조사가 결합된 ‘바다히’ 외에도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바다해’, ‘바다흘’, ‘바다히니’ 따위로 변하곤 한다.

함경도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가’가 겹쳐진 형태인 ‘이가’가 사용되기도 한다. ‘당신 딸이가 찾아왔슴메?’에서 ‘딸이가’는 ‘딸이’라는 말로 ‘이’와 ‘가’가 합쳐진 이중 주격 조사 ‘이가’가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앞의 ‘이’를 주격 조사의 일부로 볼지, ‘동찬이의’의 ‘-이’처럼 접미사로 볼지는 아직 확정하기는 힘들다. 반면 ‘내가’, ‘네가’에서 보이는 ‘내’, ‘네’는 모두 ‘나’, ‘너’에 주격 조사 ‘이’가 녹아들어 만들어진 변이 형태인 것은 틀림없다.

* 형태 : 요소가 생략되어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

1. 글을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는 언어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점]

- ① 언어는 추상적인 관념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② 언어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양상으로 사용된다.
- ③ 언어는 같은 부류의 사물들의 공통점을 찾아내 추상화한다.
- ④ 언어는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유용한 매체이다.
- ⑤ 언어는 연속적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2.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해동(海東) ㉠육룡(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제1장>

㉡스미 깊은 물은 ㄱ므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 1447 간(刊), '용비어천가'

(ㄴ) ㉢나라히 파망흐니 외과 ㄱ롬뿐 잇고 갓 안 보매 플와 나모뿐 기뻐도다

- 1841년 간(刊), '두시언해'

(ㄷ) ㉣공직 증즈드려 닐러 갈아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솔한 부모의 받즈온 거시라 -- <효경(孝敬)>

- 1586년 간(刊), '소학언해'

(ㄹ) 동리 움물터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비롯하였다.

정주 ㉤엄마래 굶기 밥먹듯한단는 것인데

- 백석, '그 모(母)와 아들'

- ① ㉠은 주어로서 중세어의 원래 주격 조사가 '이'임을 알게 한다.
- ② ㉡은 '샘이'로 '침+이'로 분석되는데 '이'도 주격 조사에 해당한다.
- ③ ㉢이 주어라면 '나라'는 단어의 끝에 'ㅎ'을 가지고 있던 말이다.
- ④ ㉣에 쓰인 'ㅣ'는 폐음절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쓰인 주격 조사이다.
- ⑤ ㉤의 주격 조사를 보면 서북 지방의 방언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구이가'와 '누구래'를 보면 어느 지방 사람이 말하는지 구분할 수 있군.
- ② 우리가 쓰는 '제가'에서 '제'도 '내'의 경우처럼 '저'에 'ㅣ'가 결합된 말이군.
- ③ '바다해', '바다홀', '바다히니' 등의 경우도 주격 조사가 결부된 말들이군.
- ④ '이' 외에 '가'가 주격 조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듣는 사람을 고려했기 때문이군.
- ⑤ '흐르리'는 제주도 말에 옛 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단어로군.